

이데올로기批判教育의 課題와 方向

全 得 柱
(崇田大 行政學科 副教授)

우리의 이데올로기批判教育의 成敗는 民主體制에 대한 理念的 信念이 얼마나 확고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우리의 政治理念이 自由民主主義라면 學生들이 이를 습득하고 生活化하는 길이 이데올로기批判教育의 가장 중요한 前提이며 手段인 것이다.

I. 머리말

만약 어느 社會學者가 韓國의 이데올로기批判教育이 第4共和國(1979년)까지 너무나 形式的인 目的인 反共을 위한 反共에 그쳤다고 主張한다면¹⁾ 이러한 진술은 거의 事實에 가까울 것이다. 第1共和國에서 第4共和國까지의 政治指導者들은 한편으로는 6.25動亂과 이데올로기의 葛藤의 심화로 다른 한편으로는 「自己保存」이라는 側面에서 相對方의 이데올로기를 禁(taboo) 시하였기 때문에 北韓이데올로기의 理論의 源泉인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대한 批判教育까지도 금지시켰다.

그 結果 젊은 學生들은 共產主義理論들에 대한 基礎資料를 접할 機會가 없게 되었고, 學問의 性格을 띤 書籍과 번역서들의 結界로 知的 혹은 이데올로기의 消化不良現象이 야기되었으며 마침내는 共產主義이데올로기의 침투에 대한

그들의 면역성마저 弱化되어 어떤 경우에는 自己의 政治理念과 體制에 대한 主體的 信念의 結界 현상까지도 招來하게 되었다.

이러한 主體的 信念의 缺如現象은 第5共和國의 初期까지 계속되었으나, 政府의 이데올로기批判教育의 開放과 自律化 方針으로, 이러한 缺如現象도 차츰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젊은 學生들의 黑白論理式 思考類型을 보다 多元的 思考로, 그들의 唯一因果論的 觀察方法을 보다 多元因果論的 觀察方法에로의 轉換을 시도하기 위해서 各大學마다 이데올로기批判教育을 주관하는 協議會 혹은 研究所를 두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各大學 이데올로기批判教育의 責任教授로 하여금 自律的인 協議團體를 구성케 함으로써 이데올로기問題에 대한 自律的인 研究와 討議를 制度化시켰다.²⁾

이 協議會가 設立된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재차 이데올로기批

判教育의 課題와 方向을 보다 더 분명히 하자는데에 本稿의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우선 우리 나라의 現內外情勢에서 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이 필요한지를 재정리해 보고 批判받을 이데올로기와 이와 관련된 社會政治理論들은 대략 어떠한 것인가를 선정해 보며

둘째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을 보다 效率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內外的 環境上的 諸問題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現實的인 問題와 그 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必要성과 範圍

1. 必要性

南北韓間의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6.25動亂을 통해서 그 絶頂을 이루었음은 既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6.25의 충격은 消極的 防禦의 이데올로기로서의 反共을 경직화시켰다. 이러한 경직화 現象은 舊政治人들의 政權의 유지와 연장이라는 動機와 함께 우리 體制 自體에 대한 省察을 도외시키고 무조건 形式的이고 盲目的인 反共教育을 強化시킴으로써 共產主義이데올로기를 오히려 批判할 수 있는 判斷能力까지도 상실시킬 뻔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反共教育은 젊은 學生들로 하여금 黑白論理의인 對決意識을 형성케 했으며 모든 社會問題를 唯一因果論的(monocausal) 觀察方法으로 보고 解決하려는 극단주의적 思考類型을 배태시켰다. 또한 이로 인한 社會政治的 不安이 과거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컸었음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을 통하여 앞으로 이 나라를 젊어질 젊은 學生들로 하여금 우리 體制를 위협하는 共產主義이데올로기와 이와 관련된 社會政治理論들을 熟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특히 南北分斷의 苦痛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의 內外情勢를 감안하여 볼 때, 대략 다음과 같은 理由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이 絶실히 要請되는 것이다.

첫째, 北韓共產主義를 비롯한 共產主義國家들은 우리의 安保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金日成은 體制와 理念을 달리하는 國家間의 平和共存을 認定하고 있지만 南北韓은 한 民族이므로 平和共存이라는 그의 對外政策的 原則이 韓半島에는 適用될 수 없다는 見解를 명백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北韓共產集團이 韓半島를 自己方式대로 共產化함으로써 이른바 民族統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共產主義를 批判하기 위해서는 우선 共產主義를 옳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北韓의 統一方式이 對外的으로는 「高麗民主聯邦制」를 主唱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暴力革命과 武力을 통하여 南北韓問題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生命과 財產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古來의 傳統文化와 우리의 自由民主主義의 基盤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事實은 명백하다.

둘째, 우리는 賦存資源이 매우 적고 인구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貿易을 통한 經濟發展이 우리의 國力伸張과 民主福祉國家建設의 淸경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要請 때문에 韓國은 불가피하게도 對外貿易依存도가 높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어려운 狀況下에서 全世界人口의 1/3을 지배하는 共產主義世界를 理解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과의 貿易은 물론 그들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기인한다.

세째, 第4共和國까지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을 禁止하였던 것은 共產主義이데올로기를 비롯한 우리의 體制를 위협하는 다른 諸般 社會主義理論들에 대한 편협적이며 단편적인 知識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非正常的인 호기심을 유발함으로써, 一部 學生들로 하여금 共產主義理想에 현혹되게 하는 데 間接的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도 自律的인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네째,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必要性은 共產主義이데올로기와 우리 體制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기타 社會理論들이 虛構에 차 있으며 虛偽意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社會理論에는 絶對的 眞理가 存在할 수 없다는 事實을 젊은 學生들에게 일깨워 주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共產主義이데올로기와 이와 관련된 기타 社會理論과 그 實際의 괴리에서 야기된 잔

학생, 비인간성을 認識한 民主市民은 그 스스로가 社會內에서 행한 行爲에 대한 조용한 省察을 할 수 있고, 이러한 省察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社會가 指向하고 있는 理念과 思想에 대한 확고한 信念을 가질 수 있으며, 다시 이를 새롭게 認識하는 계기를 갖게 하는 데에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부차적 任務가 있다고 하겠다.

여섯째, 더 나아가서 우리의 理念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努力의 前提는 또한 우리가 共產主義이데올로기와 이와 관련된 社會主義理論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그 問題意識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우리의 理念과 體制를 지속적으로 啓發하면서 우리의 社會가 참으로 正當하고 共產社會는 不當하다는 實과 虛가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理念과 體制가 그들의 것보다 더 眞實된 것이고, 現實적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自由와 幸福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며, 우리의 理念과 體制를 수호하여야 한다는 責任과 義務에 대한 認識은 더욱 공고히 될 것이다.³⁾

2. 範圍(教育主題를 中心으로)

“현재 우리 政府는 國民精神教育의 強化를 政府의 指針으로 삼고 있다. 政府의 有權的 解釋에 의하면 國民精神教育은 大別하여 政治教育과 倫理教育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

政治教育이란 모든 社會政治體制內의 全構成員들이 그 體制의 安定과 發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體制의 正當性에 대한 肯定的 態도와 知識 등을 지니고 이를 行動으로 연결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다. 또한 우리의 社會政治體制와 理念을 위협하는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勢力에도 맞설 수 있는 信念과 行動을 갖추게 하는 데에도 그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⁵⁾ 따라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政治教育의 下位概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體制와 理念을 위협하는 이데올로기와 그의 관련된 社會政治理論들은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미리 선정하여 教育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筆者의 私見임을 전제로 우리의 體制와 理念을 위협 혹은

否定하는 이데올로기와 그 理論들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신봉하거나 그들의 환경에 맞게 적용시킨 蘇聯式 共產主義와 中國·北韓·루마니아式 共產主義

둘째, 行政的 社會主義로서의 티토이즘(Titoism)

세째, 西歐政治文化를 인정하는 歐洲共產主義 네째, 青年 마르크스思想을 보완·심화시키려는 네오 마르크시즘

다섯째, 과격한 저항적 民族主義의 감정에 입각한 從屬理論

여섯째, 解放神學

일곱째, 極右, 極左를 막론한 Terrorism

여덟째, Nazism, Fascism, 軍國主義와 같은 全體的 이데올로기

아홉째, 소비니즘과 植民史觀

열째, 地上에 千年王國을 세우겠다는 似而非宗派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批判對象 이데올로기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우선 國家的 合意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Ⅲ.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環境上의 問題點

1. 肯定的 이데올로기의 啓發과 그 土着化

이데올로기를 肯定的으로 보는 代表的인 學者中的 한 사람인 오이겐 렘베르크(Eugen Lemberg)는 이데올로기의 社會政治的 機能을 統合(Integration), 紐帶(Solidarity)와 正體性(Identity) 등의 세 가지로 보고 있다. 한 社會政治體制가 그 構成員을 效果적으로 統合하고 모든 構成員들을 하나의 目標을 향해서 團結시키며 그 體制의 正體性을 對外에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⁶⁾

이러한 基本的 機能을 가진 이데올로기가 그 社會構成員들의 思考와 行動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그 이데올로기는 와해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대신 들어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역사적으로 볼 때 허다한데 우리의 주위에서 그 예를 든다면 高麗朝의 佛敎理念의 와해와 朝鮮

朝의 儒敎理念의 배척 및 1975년의 월남의 共產化를 들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의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의 성패는 學生들이 얼마나 우리의 理念體系에 대한 確信이 서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즉 우리의 政理想念이 自由民主主義라면 學生이 이를 습득하고 生活化하는 것이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의 가장 중요한 前提이며 手段인 것이다. 만약 우리의 理念에 대한 確固한 信念이 결여된 者가 共產主義이데올로기에 접하게 되었을 때 共產主義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主張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思考와 行動을 規制할 수 있는 우리의 이데올로기가 여타의 이데올로기를 批判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認識主體의 外的인 對象을 評價하기 위해서는 評價基準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理念과 體制를 위협하는 이데올로기를 批判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은 지금까지의 一方通行式 反共敎育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傳統과 現實에 부응하는 肯定的 이데올로기의 개발과 그 土着化를 必須的인 課題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社會가 資本主義體制를 土着으로 하여 成長할 경우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은 既知의 事實이지만⁷⁾ 人道主義의 매려가 없을 때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貧益貧과 富益富의 矛盾을 제거하고 그 非理와 不正을 부단히 矯正하는 作業을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의 前提條件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이데올로기 批判敎育 環境上的 問題點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이 正常的으로 實踐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의 主擔當機關의 活性化 및 制度的 改善과 함께 그 外的 環境의 發展이 前提가 되어야 함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즉 한 國家의 政治, 社會, 經濟, 文化的 性格, 歷史的 傳統, 國際政治的 環境은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의 內容과 性格을 規定하는 데 중요한 變數로 간주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韓國의 경우 政治社會體制의 점진적 改革試圖, 否定的 意識構造의 척결, 政治權力, 所得 및 社會

的 諸價値의 公正한 分配, 南北韓競爭에서의 優位確保, 傳統的 價値의 現代的 變容, 諸 社會政治團體의 協力基盤構築 등의 要因들이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의 正常化를 위한 外的 環境上的 主要 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이러한 外的 環境上的 要因들이 이데올로기 批判敎育과 긴밀한 相關關係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問題는 이 글의 目的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詳論은 省略하고 다만 現行 이데올로기 敎育上的 諸 問題點들만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을 주도하는 人的 資源의 不足을 들 수 있다. 第4共和國까지 共產主義書籍을 보지 못하게 한 결과 그쪽 分野에 대해 깊이 研究한 學者들이 적다. 때문에 文教當局은 이러한 점을 감안, 이 分野에 責任을 지고 있는 學者들의 自給향상을 위해서 定期的인 해외연수나 國內의 연수과정을 간담없이 지속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專門家들을 양성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各 大學(全國 98개 大學)에는 이데올로기 批判敎育 研究會가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敎授의 沒理解와 否定的 視角으로 인해 이 敎育을 위한 충분한 協力 및 지원 體制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大學이 大部分인 실정이다. 水準이 높은 學生이 많은 大學일수록 이데올로기 批判敎育의 必要性은 높으며 이의 思想的 對策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社會政治體制 全般의 위협이 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셋째, 文公部에서 주관하는 禁書에는 시간과 전문성의 制約으로 禁書가 될 수 없는 書籍이 禁書가 되었거나, 禁書가 되어야 할 책은 禁書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禁書에 대한 改善策이 全國大學 이데올로기 批判敎育 責任敎授 協議會, 文敎部, 文公部, 安企部 등 諸 關聯機關의 긴밀한 協力으로 새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大學 敎科課程上 국민윤리Ⅱ와 이데올로기론은 사실상 同一한 主題이므로 學生들이 중복해서 수강해야 하는 不合理한 制度上的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國民倫理 擔當敎授, 이데올로기 批判敎育 責任敎授 및 各 敎

務處長으로 구성된 研究팀을 통한 이의 更正·研究가 요망된다.

다섯째, 責任教授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자료실을 확보해야 한다. 各 大學 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에 관한 資料를 별도로 研究所內의 資料室에 비치하여 學生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制度化하는 것이 여러 가지 面에서 效果的일 것이다. 또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 責任教授는 關係機關의 허락 없이도 어떠한 資料라도 구할 수 있는 政府의 배려가 요망된다.

여섯째,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을 위한 연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예산의 부족, 학교당국의 沒理解와 부정적 태도 등으로 형식 위주의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데올로기 批判教育 責任教授가 학교당국과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의 주요간부회의에 옵서버(observer)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곱째, 脚註가 없는 많은 共產主義理論書들이 시중에 범람함으로써, 學生들이 그러한 책에 대한 선명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學問的인 저술과 번역을 문교부의 재정지원하에 계획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덟째, 韓國의 學問風土는 상당한 폐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問題와 관련된 상이한 學問分野의 協力이 缺如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拒否反應까지 일으키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앞으로 全國大學 이데올로기 批判教育 責任教授協議會는 이러한 否定的 側面을 타개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는 데에 많은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홉째, 이데올로기協議會나 그 研究所의 設立條件을 學則에 삼입시킴으로써 政權交替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이 一貫性 있고 持續性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

Ⅳ.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課題와 方向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現實的인 諸 問題를 검토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데올로기를 批判하는 教育을 實施하느냐 하는 그 課題 및 方向을

알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이 우리의 內外情勢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하다고 判斷한다면 그것은 流行的인 次元을 떠나서 統領 政權이 交替되어도 어디까지나 國家的인 次元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우리의 政治理念 教育을 바탕으로 하고 肯定的 이데올로기의 계속적인 開發을 그 前提로 해서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데올로기 批判은 스스로 特別한 種類의 이데올로기를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言語純化試圖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具體的인 資料를 통해서 立證 내지 反證되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客觀的·科學的 方法을 채택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네째, 이데올로기 批判은 學生들로 하여금 健全한 社會意識을 형성케 하고, 政治, 社會, 經濟的 諸 問題들에 대하여 批判的으로 思考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준다는 方向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方法論에 있어 社會의 諸 現象을 唯一因果論에 의해서가 아니라 多元的 分析方法에 의해서 이데올로기를 공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學生들이 社會的 葛藤問題를 合理的인 對話와 理性的 妥協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 주는 方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學生들로 하여금 虛偽意識으로 가득찬 이데올로기나 그와 관련된 社會政治思潮들의 면역화, 모호화, 연막화 및 神성화의 교조적 戰略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獨自的인 判斷能力을 길러 주고 훈련시키는 方法을 개발해야 한다.⁸⁾

여섯째,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問題만을 다루지 않고 항상 이와 관련된 諸般 社會問題들과 연관해서 취급하는 것이 더욱 效果的이다.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克服만을 核心課題로 다룬다면 學生들은 다시 종래의 反共教育의 限界性에서 탈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은 極端主義가 發生할 수 있는 社會環境, 個人的 背景 등 社會問題 全般에 대한 올바른 認識을 하도록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일곱째, 이데올로기批判은 認識의 現狀에 더 이상 맞지 않는 특정한 편견과 先入見 특히 社會政治的으로 매우 중요한 結果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先入觀들(우리의 體制를 위협하는 諸般 社會政治理論들)을 교정해야 할 任務가 있다.

여덟째, 이데올로기批判은 각 개인의 意識狀態에 의존되어 있으므로 主觀的인 것에서 탈피될 수 없다는 것을 認識해야 한다. 따라서 폐쇄 사회인 共產主義社會에서 행하고 있듯이 어떤 特定 이데올로기가 論爭의 餘地가 없고 絶對的으로 완전하다는 식의 教育이 되어서는 안 된다.

不完全한 人間이 不完全한 人間과 相互作用하고 있는데서 야기되는 社會的 葛藤이나 語謬를 完全히 解消 내지 除去할 수 있는 代案이나 理論의 提示는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어느 社會에서나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아홉째, 이데올로기批判教育의 效率性을 고려할 때 大衆媒體, 文學, 및 藝術에 의한 間接的 教育方法은 더욱 큰 效果가 있다.

열째, 이데올로기批判教育은 開放的이어야 하는 바, 첫째 資料의 開發로써 禁書가 가급적 적어야 하고, 둘째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와 관용으로써 대할 수 있는 包容性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側面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批判教育은 一種의 人格教育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⁹⁾ *

<註>

- 1) 진덕규, 「한국이데올로기教育의 정체」, 월간조선 (1982. 7), p. 103.
- 2) 全國大學 이데올로기批判教育 責任教授協議會는 1982年 8月 11日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實施된 세미나에서 結成되었음.
- 3) 전득주, 이데올로기론(서울: 박영사, 1982), 서문 참조.
- 4) 이규호, “政治教育과 道德教育”, 國民倫理教育研究會, 國民倫理研究, News Letter, 第5號(1980. 11. 4) 참조.
- 5) 경세구, 국민정신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方法 模型開發, 國土統一院 發行, 1982.
- 6) Eugen Lemberg, Ideologie und Gesellschaft, Eine Theorie der ideologischen Systeme(Stuttgart, 1974), pp. 318—321.
- 7) 첫째로, 民族的 貧困을 극복하고 後進性을 탈피하기 위한 富의 축적을 할 수 있는 效率性과 둘째로, 人間다운 삶과 人間性의 伸張, 最善의 實現을 위한 기본적인 條件으로서의 自由를 北韓共產主義보다 훨씬 많이 保障받고 있음.
이규호, “이데올로기批判教育의 의의”, 속리산 이데올로기批判教育 責任教授協議會 세미나 特講에서, 1982. 8. 7
- 8) Hans Albert, Traktat über kritische Vernunft (Tübingen, 1969), 130ff.
- 9) 李奎浩,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意義, 前掲書.